

#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 Family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of Single Mother Families

정 현 숙\*  
Chung, Hyunsook  
서 동 인\*\*  
Suh, Dong In

### ABSTRACT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275 adolescent children of widowed or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oping resources, including individual, financial, social, and mother-child relational resources and their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se adolescents.

After controlling background variables of the family, higher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was associated with low grade point average, mother's high exposure to negative experiences after loss of father, low attachment to mother, and low sense of self-control. Furthermore, higher grade point average, strong attachment to mother, and high self-control in problem solving were factors predicting higher self-esteem of adolescents. Social network resources were not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adolescents.

Discussion include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arent-child relations were discussed with a view to enhancing family functioning of adolescents in single-mother families.

### I. 서 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는 여성가  
구 중 62%는 편모가족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이들 편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여성개발  
원, 1984, 1990)에 의하면 대부분의 편모(90%)  
는 경제생활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  
우 궁핍하며, 과중한 역할과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

\* 상명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긴장에 시달리며,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성혜, 한유진, 1995; 박경희, 1987).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편모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아버지 부재로 인해 자녀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내용도 편모가족의 자녀와 양부모 가족의 자녀를 인성특성면에서 비교한 연구(강해구, 1987; 김정삼, 1990; 이우신 1992) 몇편만을 찾아 볼 수 있다. 편모가족의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며 또한 이혼가족의 자녀들의 적응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고성혜, 한유진, 1995; 정현숙, 1993).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편모가족이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몇편 안되는 편모가족 연구들은 개념적, 방법적인면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兩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에 기초해 兩부모가족과 편모가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편모가족의 자녀들이 여러면에서 兩부모가족의 자녀들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의 구조적인 면만을 비교하였을 뿐 가족의 상호작용적이며 심리적인 기능면을 보지 못했고, 편모가족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특히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자녀와 부모관계의 질, 자녀에 대한 가치관, 신념, 가족분위기와 같은 내적·심리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였다.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규칙설정, 의사소통, 가족자원 및 가족관계

등 부모역할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찰한 연구를 통해 Horowitz(1995)는 편모가족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각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편모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편모가족이 기능적이지 않고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가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성이 커진다. 즉 편모가족의 자녀가 실제로 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무엇이며, 어떠한 지원체계가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편모가족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대처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해결 방식 등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망 등의 사회적 자원, 가족의 경제적 자원, 어머니-자녀 관계 등의 가족적 자원 및 현재 자녀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편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여 이러한 다양한 자원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며, 아울러 이들이 요구하는 공적인 지원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족복지를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1: 편모가족의 자녀가 지각한 다양한 자원은 무엇인가?

- (1) 개인적 심리적 자원은 어떠한가?
- (2) 가족관계적 가족자원은 어떠한가?
- (3) 사회적 자원은 어떠한가?
- (4) 경제적 자원은 어떠한가?

2. 연구문제 2: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문제 3: 편모가족 자녀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제한점과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자료수집은 사회계층과 남녀 비율 및 중·고등학교의 안배를 고려한 목적적 편의표집으로 학교를 선정하였다. 총 14개 학교(7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통해 편모가족의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집에서 완성케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275부(92%)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pc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주요인분석과 사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과 Cronbach의  $\alpha$ 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 3과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적인 분석과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2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모의 연령, 배우자와의

이별기간, 편모의 취업여부 및 교육정도, 가족형태 등은 어머니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자녀의 성, 연령 및 학교성적은 자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외에 편모가족 자녀의 자원을 알아보기 위한 영역별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편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

본 연구에서 심리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문제해결방식으로 McCubbin, Olson, Larson(1982)의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F-COPE)을 기초로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친구/이웃의 도움(3문항), 스스로 해결(4문항)의 두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57, Cronbach  $\alpha$ =.59이다.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 2) 편모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적 자원

편모가족의 가족관계적 자원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 자율성,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형제간의 의사소통으로 측정하였다. 애착척도는 유은희(1991)의 애착과 자율성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문항내용이 중복되거나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애착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7문항으로 Cronbach  $\alpha$ =.84이며, 자율성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7문항으로 Cronbach  $\alpha$ =.68이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어머니께 느끼는 바를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나의 말에 귀기울여 주신다’, ‘어머니는 내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신다’ 등의 6문항을 채택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형제·자매관계에서의 긍정적 의사소통 5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높은 점수는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Cronbach  $\alpha=.90$ 이며, 형제·자매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Cronbach  $\alpha=.92$ 이다.

이외에 이들의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별후에 나타난 자녀와 어머니의 긍정적 측면의 변화를 묻는 9문항과 부정적 변화를 묻는 5문항이 사용되었다. 긍정적 변화는 부모역할수행, 가정관리, 개인적 성장 및 경제적 능력 등 4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변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긍정적 변화 척도의 Cronbach  $\alpha=.80$ 이며, 부정적 변화 척도의 Cronbach  $\alpha=.62$ 이다. 자녀가 지각한 모의 긍정적 변화 척도는 Cronbach  $\alpha=.69$ , 자녀가 지각한 모의 부정적 변화 척도는 Cronbach  $\alpha=.65$ 이다.

### 3) 편모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원

편모가족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가 지난 1년간 받은 사회적 지원과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자녀가 받은 사회적 지원은 자녀가 지난 1년간 친가(친할아버지·할머니, 큰/작은 아버지), 외가(외할아버지/할머니, 외삼촌, 이모), 부모님 친구·이웃, 종교·사회적 기관으로 부터 받은 경제적, 정서적, 오락적 도움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원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0$ , 경제적 지원은 Cronbach  $\alpha=.71$ , 오락적 지원은 Cronbach  $\alpha=.73$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받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의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편모가족 청소년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생활수준 및 용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의 가정형편에 대한 기대를 각각 5점 Likert 척도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잘 사는 것으로 인식하며,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용돈에 대해 풍족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앞으로의 가정형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으로의 가정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편모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

편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증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은 CES-D을 근간으로하여 작성되었으며 문항간의 내적일치도가 낮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총 11문항이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86$ 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6문항을 선택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자존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이 척도는 요인 분석 결과 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alpha=.73$ 이다.

### 6) 복지요구도

편모가족 청소년의 복지요구도는 직업교육, 부모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어머니의 취업 지원, 학비지원, 대학등록금지원, 자녀상담, 생활교육 등의 8가지 영역에 대한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특징

연구대상 자녀는 남학생이 37.3%이며, 중 1에서 고 2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출생 순위는 큰자녀 23.7%, 중간 9.5%, 막내 47.4%, 외동이 19.3%이다. 이들의 학교 성적은 상위 25%가 30.3%, 상위 50%안에 드는 자녀가 24%, 50-75%안에 28.8%, 75-100%안에는 16.9%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구대상 편모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편모가족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빈도(%)	변 인	빈도(%)		
모 연령	31-35세	8( 2.9)	모 교육수준	국졸	57(20.9)
	36-40세	71(26.0)		중졸	74(27.1)
	41-45세	122(44.7)		고졸	105(38.5)
	46-50세	41(19.4)		전문대졸	2( .7)
	50세 이상	19( 7.0)		대졸	31(11.4)
모의 직업	비취업	53(19.3)	소 득	대학원이상	4( 1.5)
	단순노무직	35(15.9)		30만원 이하	7( 2.6)
	운수기능직	1( 0.5)		31-60만원	64(23.4)
	생산기능직	35(15.0)		61-90만원	69(25.3)
	일차산업	3( 1.4)		91-120만원	53(19.4)
	서비스직	79(35.9)		121-150만원	35(12.8)
	판매직	46(20.9)		151-180만원	19( 7.0)
	사무직	9( 4.1)		181-210만원	13( 4.8)
	행정관리직	1( 0.5)		210만원 이상	13( 4.8)
	전문기술직	13( 5.9)		편모기간	0-5년
편모사유	사 별	208(76.8)	6-10년		85(21.5)
	이 혼	63(25.2)	11-15년		51(18.9)
			16-19년		10( 5.7)

<표 1>에 의하면 가족의 소득은 25.3%가 61만원-9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6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도 26%에 해당된다.

이를 1995년의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인 170만원에 비추어 볼 때(통계청, 1995), 편모가족의 수입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은 16.6%가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민가족에 편중되었던 선행 연구 대상보다는 가족의 소득이 다양한 편이라고 하겠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에서 58세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42.3세( $SD=4.67$ )이다. 이들이 편모가 된 기간은 1년-19년 사이이며 평균 이별기간은 7.1년( $SD=4.5$ )이다. 그러나 46%의 편모는 배우자와 이별한 기간이 5년 미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편모가 30대에 남편과 이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이다. 편모가 된 이유는 사별에 의한 것이 76.8%로 가장 많으나 이혼, 가출, 별거 등에 의해 편모가족이 된 경우도 4명중 1명정도(23.2%)로 나타나 편모가 된 사유에 있어 이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어머니의 학력은 65.6%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어머니도 13%이다. 이들의 취업상태는 10명중 8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편모의 학력이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인 어머니들도 역시 서비스·판매직(56.8%), 단순 노무직(15.9%) 및 생산직(15%) 등의 비숙련직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0명 중 1명의 편모는 사무직, 행정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학력의 변화에 따르는 취업직종의 변화도 알 수 있다.

편모가족의 85.5%는 핵가족이며 나머지는 직계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직계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 친정부모(10.3%)와 동거하는 경우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4.2%)보다 훨씬 많아 친정식구와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문제 1: 편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다양한 자원은 무엇인가?

### 1) 자녀가 지각한 심리적 자원

자녀의 심리적 자원으로 본 대처방안은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로 구분된다. 자녀들은 5점척도의 응답에 친구나 이웃,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평균 2.90( $SD=.69$ )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평균 = 3.50,  $SD=.69$ )이 더 높다.

### 2)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적 가족자원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적 자원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애착,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자율성, 어머니와 형제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편모가족이 된 후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살펴 보았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애착의 전체 평균은 3.69( $SD=.80$ , 범위:1-5)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아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애착문항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며,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가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들어 주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사이에서의 자율성은 평균 3.95( $SD=.44$ , 범위 1-5)로 애착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편모가족에서는 아버지의 부재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위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는 다르게 어머니와 자녀간의 지나친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긍정적 수준의 애착과 동시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함께 보이는 것은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사회·심리적 관계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전체 평균 3.29

( $SD=.90$ , 범위:1-5)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으나 그다지 긍정적인 경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의사소통 문항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라는 문항은 점수가 높으나, 어머니에게 쉽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와의 대화방식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자녀는 어머니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자녀가 어머니에게 개방하는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가는 청년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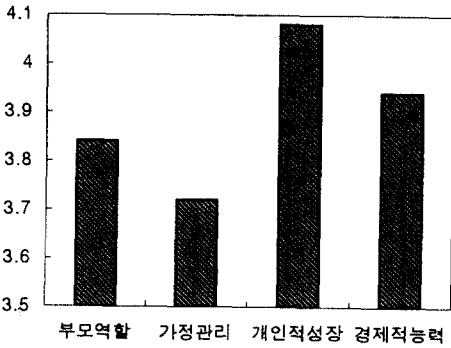
형제간의 의사소통은 전체 평균이  $2.89(SD=1.10)$ , 범위:1-5)로 긍정적인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형제간의 의사소통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들어서면 형제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친밀한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본 연구 대상 자녀는 형제간의 의사소통의 친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편모가족관계에서 주로 형제·자매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축이 됨을 알 수 있다.

편모가족이 된 후의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자녀들은 편모가족이 된 이후 엄마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M=3.89$ ), 엄마가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 주며( $M=3.57$ ),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하게 되는( $M=3.44$ ) 등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적인 생활( $M=2.83$ ), 공부에 대한 문항( $M=2.65$ )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표 2> 자녀가 인식한 자신과 긍정적·부정적 변화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문항	평균( $SD$ )
긍정적 변화	어머니를 보다 이해하게 되었다.	3.89(1.01)
	엄마가 용기를 잃지 않게 되었다.	3.57(1.07)
	내일을 스스로 잘하게 되었다.	3.44(1.09)
	내 생활을 계획적으로 잘하게 되었다.	2.83(1.02)
	내가 좀더 씩씩하고 의젓해졌다.	3.31(1.06)
	내 생활 태도가 긍정적으로 되었다.	3.25(1.06)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3.02(1.15)
	공부를 더 열심히하고 학교성적 좋아졌다.	2.65(1.09)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졌다.	3.11(1.22)
	긍정적 변화 전체	3.21(0.68)
부정적 변화	엄마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	3.88(1.11)
	집안에 아버지가 안계셔서 여러가지로 어려웠다.	3.31(1.30)
	집안일 때문에 공부/친구관계에 소홀하게 되었다.	2.18(1.12)
	집안일이 어려워 육체적으로 힘이 들게 되었다.	1.97(1.14)
	부정적 변화 전체	3.01(0.73)



〈그림 1〉 자녀가 인지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

한편 자녀가 인식한 자신의 부정적 변화로는 엄마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M=3.88$ ), 집안에 아버지가 안계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다( $M=3.31$ )라고 응답한 반면 집안일 때문에 공부나 친구관계가 소홀하게 되거나( $M=2.18$ ), 집안일이 너무 어려워 육체적으로 힘이 들게 되었다( $M=1.97$ )라는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자녀는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부정적 변화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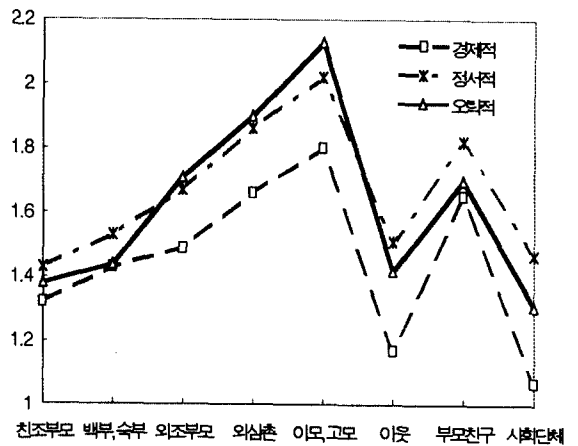
그러나 자녀가 인지한 어머니의 긍정적 변화를 영역별로 나타낸 〈그림 1〉에 의하면 자녀들은 편모가 된 후 어머니의 개인적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적응력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변화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지나친 기대를 한다고 인식하며( $M=3.03$ ,  $SD=1.27$ ), 어머니가 생활비나 학비 걱정도 하고있는 것으로( $M=3.18$ ,  $SD=1.37$ ) 지각하였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한다거나( $M=1.51$ ,  $SD=1.07$ ), 자녀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M=2.21$ ,  $SD=1.23$ ), 신세한탄을 한다거나( $M=2.21$ ,  $SD=1.23$ ) 하는 행동은 매우 낮았

다. 또한 자녀가 인식한 어머니의 전체 긍정적 변화는 평균  $3.83(SD=0.67)$ 으로, 부정적 변화  $2.41(SD=.83)$ 보다 높아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으로의 변화를 더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

편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은 자녀가 느끼는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원 정도로 측정하였다.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65명(23.9%), ‘긍정적, 부정적이지도 않다’ 177명(65.1%), ‘긍정적인 편이다’ 30명(11%)으로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2〉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원 정도는 〈그림 2〉와 같다. 편모가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1.10~2.16으로 매우 낮다(범위 1-4). 이들이 받는 사회적 지원 중에



서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오락적, 경제적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의 상대적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이모로 부터는 오락적 지원이 많으며, 부모님 친구들로 부터는 정서적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들과 외삼촌 등 외가댁과 어머니의 친구는 편모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관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편모가족에게 자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4) 자녀가 지각한 경제적 자원

자녀들의 경제적 자원은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용돈에 대한 태도와 가족소득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활수준은 ‘못사는 편이다’ 59명(21.4%), ‘보통이다’ 202명(73.2%), ‘잘사는 편이다’ 15명(5.4%)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이들은 가정 형편에 대하여 70.8%의 청소년이 ‘앞으로 나아질것으로’(194명)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용돈에 대하여서는 ‘부족한 편이다’ 135명(49.1%), ‘문제없다’ 113명(41.1%), ‘풍족한 편이다’ 27명(9.8%)으로 대상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신의 용돈에 대하여서는 ‘부족한 편이다’ 135명(49.1%), ‘문제없다’ 113명(41.1%), ‘풍족한 편이다’ 27명(9.8%)으로 대상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에서 본 연구대상의 가족소득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활수준이 보통 수준이라고 여기며,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은 낮으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의 태도는 이들 편모가족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자녀의 우울증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우울증		자존감					
	모델 3		모델 4		모델 1		모델 2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편모이유(이혼=1)	.73	.06	.84	.07	.15	.02	-.46	-.05
편모기간	-.05	-.04	-.06	-.06	-.04	-.05	-.06	-.07
학교성적	-1.55	-.32***	-1.10	-.24***	1.01	.28**	.67	.19*
어머니의 긍정적변화			.06	.07			-.01	-.01
어머니의 부정적변화			.29	.24***			-.04	-.04
애착			-.15	-.18*			.14	.22*
자율성			-.21	-.13*			.07	.05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			-.15	-.06			.62	.33**
친구/상담가의 도움 정도			-.26	-.14*			.14	.10
소득			-.05	-.02			-.10	-.05
지각한 생활수준			-1.11	-.11			.30	.04
외가의 지원			.01	.03			-.01	-.02
친가의 지원			-.02	-.07			.02	.10
이웃·친구의 지원			.02	.06			-.02	-.10
사회단체의 지원			-.03	-.05			.02	.03
절편	4.90		4.07		23.01		4.07	
R <sup>2</sup>	.11***		.26***		.08**		.26**	
R <sup>2</sup> 증가량			.14**				.18*	

\* $p < .05$  \*\* $p < 0.01$  \*\*\* $p < .001$

3. 연구문제 2: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자녀가 지각한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우울감과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평균 9.02( $SD=5.10$ , 범위:0-34)으로 낮은 우울감의 수준을 보이고, 자녀의 자존감은 평균 20.52( $SD=3.93$ , 범위:6-30)로서 약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편모이유와 편모기간 및 학교성적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모델 2에 의하면 자녀의 학교성적( $\beta = -.24$ ),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어머니의 부정적 변화( $\beta = .24$ ), 자녀와 어머니간의 애착( $\beta = -.18$ ), 자녀의 자율성( $\beta = -.13$ ), 그리고 친구·상담가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 $\beta = -.14$ )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편모가족이 된 이후에 어머니의 부정적변화가 적을수록, 자녀와 어머니간의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클수록 자녀의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은 전체 우울증의 변량 26%를 설명하며, 이 중 학교성적과 어머니의 부정적 변화가 자녀의 우울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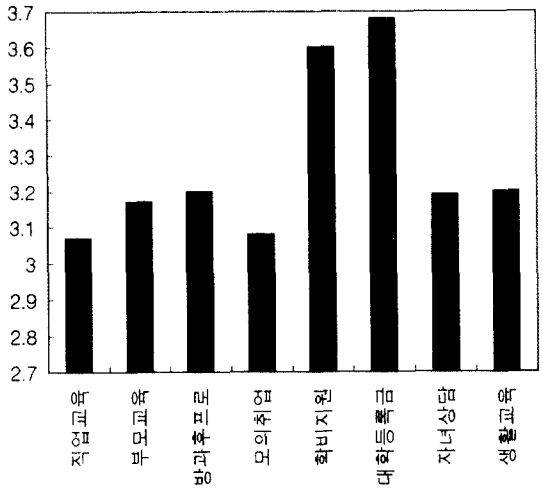
<표 3>의 모델 4에 의하면 자존감은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beta = -.19$ ), 자녀와 어머니간의 애착 정도가 강할수록( $\beta = .22$ ),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가 클수록( $\beta = .33$ )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편모가족의 외적 특성에 관련된 변인보다는 가족관계적인 변인이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

다.

4. 연구문제 3: 편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복지요구도는 어떠한가?

편모가족 자녀들의 복지요구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녀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 3.07~3.68(범위 1-5)로 중간 정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 대상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중·고등학교 학비지원과 대학 등록금지원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학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편모가족 자녀의 복지요구도

IV.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편모가족 자녀의 심리적, 가족관계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은

그 내용과 양에 있어 다양하다. 심리적 자원으로 살펴본 대처방안은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관계적 자원으로 측정한 어머니와의 애착과 자율성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긍정적이어서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매우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형제간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10대라는 발달단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친구에 대한 지향이 강하고, 또한 세대간의 차이를 크게 느껴 부모와 자녀간이 소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때 위의 결과는 새롭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 모두 서로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동시에 가족관계에서 차지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시에 기대와는 다르게 형제간의 의사소통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나 형제간에 털어놓지 못한 마음을 풀 수 있는 친구들의 역할을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친구로부터의 심리적 지지여부와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심리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으로 살펴본 사회적 편견에 대해 자녀들은 편모가족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지원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그 중 외가와 어머니 친구들을 통한 정서적 지원

이 많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편모가족의 자녀들에게 외가와 어머니의 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성혜·한유진(1995)의 연구에서 편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족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더 갖는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비록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 대상의 객관적인 경제상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 하겠다. 경제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자녀의 지각은 상당히 좋은 자원임에 틀림없으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생각된다.

둘째, 편모가족이 된 후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자녀들은 아버지가 안계셔서 집안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응답했으나 자녀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이나 집안일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와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특히 자녀들은 편모가 된 후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하였다. 반면 미국의 편모가족의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Richards 와 Schmiege(1993)는 어머니 스스로는 자신들이 부모역할 수행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며, 두 번째로 가정관리 능력의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장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어머니

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고성혜·한유진(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편모가족의 자녀들은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는 있으나 자신이나 어머니가 어려움을 곳곳하게 극복하는 강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변화와 어머니의 변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경향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편모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어 내는, 다시 말하면 편모가족의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가 구조적인 관점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의 상호작용적이며 심리적인 기능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성혜·한유진(1995)에서 편모는 비일관적 행동과 신경질이 많이 늘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다른 연구보다 학력이 높은 때문이기도 하고, 본 연구가 부정적 변화 뿐만 아니라 긍정적 변화도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편모가 된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적응의 지표로 측정된 자녀의 우울감의 수준은 낮으나 또 다른 지표인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신의 학교성적, 어머니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 어머니와의 애착 및 자율성,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가족의 자녀의 우울감과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인 자녀가 10대라는 자아정체

감 형성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즉, 이들의 낮은 자존감 수준은 가족구조나 가족환경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발달단계의 특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학업 성취이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애착이 설명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이어서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고 털어 놓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편모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여러 자원 가운데 가족관계적 자원이 가장 설명력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심리적 친밀도가 아버지가 안계심으로 써 생길 수 있는 편모가족의 여러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상쇄시키는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편모가족이 된 이후의 어머니의 부정적변화가 클수록 자녀들의 적응이 어렵다는 결과에서도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정현숙(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혼가족의 자녀적응에는 부모와의 개방적대화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와의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결과이다.

자녀의 자존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델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양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맞벌이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서동인, 1992)와 이혼후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정현숙,

1993)와 같은 결과로, 자녀 스스로가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여길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와, 위에서 지적한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가 우울감과 관련있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융통성있는 태도가 적응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교성적이 두 모델에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등장한 것은 본 연구대상이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한 중·고교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 보여진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함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이 결과로부터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이고도 융통성있는 생활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적 자원을 측정하는 자율성 척도와 편모가족이 된후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으며, 심리적 적응을 우울증과 자아존중감 척도만 이용한 점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고수입의 편부모나, 저학력/저소득의 편부모가족 등 다양한 경제상태를 보이는 편부모가족의 분석은 사례수의 제한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편모가족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가족학연구회 편(1994).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 강혜구(1987).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호, 60-73.
- 김정삼(1990). 정상가정 아동과 편부모 아동의 인성 특성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문용(1989). 결손가정자녀의 가정환경요인과 적응요인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 외(1992).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서출판 하우.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우신(1982).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우(1992). 결손가정아의 가정환경 요인과 성격 요인과의 관계 연구-국민학교 부결손아·모 결손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1990). 결손가정학생의 가정환경 및 성격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3, 59-76.
- 통계청(1992).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 Amato, P. (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Barnes, H., & Olson, D. (1982).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C. A. Freeman.
- Gongal, P., & Thomson, E. Jr. (1987). Single parents families. In M. Sussman & S.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397-418). NY:Plenum
- Horowitz, J. (1995). Conceptualization of parenting: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 43-70.
- Kelly, J. (198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Converging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119-140.
- McCubbin, H., Olson, D., Larson, A. (1982).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F-COPE*.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Richards, L., & Schmiede, C.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J. & Kelly, J. (1980). *Surviving the breakup*. N.Y.: Basic Books.